



“그래! 바로 여기야! 내가 꿈꾸고 있던 그곳...”

- 대성여자중학교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정신없이 학교까지 뛰어와서 비몽사몽인 상태로 아침교수목원에 향했다. '아침교수목원! 교수목원을 가기 일주일 전부터 선생님들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목원이라고 하시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 대체 어떠한 곳이길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일이 마르도록 좋은 얘기들만 해주시는 걸까. 교수목원이 다 그렇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던 나였기에 처음엔 선생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게 흘려버렸다. 그런데 막상 교수목원을 가기 전날 밤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설레서 잠이 안 왔다. 모르긴 몰라도 내 맘 속엔 이미 교수목원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나보다. 그걸 교수목원 간다고 설레서 잠도 못 잔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창피했었다.

버스를 타고 3시간 남짓 갔을까, 드디어 아침교수목원에 도착 할 수 있었다. 교수목원에 처음 들어섰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오히려 들어가는 입구가 약간 작아서 실망했다. 그렇게 아무생각 없이 교수목원 안쪽으로 점점 들어갔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눈은 커지고 입은 벌어지고 내 손은 시진을 찍느라 바빠지고 있었다. 아직 교수목원 다 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극히 일부만 보고서도 내가 감동 하구나... 난생 처음 보는 꽃들이 여기저기 예쁘게 피어있고, 자연 그대로의 멋을 한껏 살린 주변 경관들이 기하 환상이었다. 약간의 비가 내리는 바람에 주변이 우중충해서 전혀 안 예쁠 것 같았는데 예상 외로 더욱 분위기가 시는 것 같았다. 주변의 산과 하늘이 구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풍경

대성여자중학교 푸른숲선도원 숲체험교실

- + 일시 2006년 9월 9일
- + 장소 아침교수목원
- + 총 참가 인원수 40명
- + 진행방법 및 상세 교육내용

- 1) 숲 해설사 설명듣기
 - 숲의 역할기능알아보기
 - 식물의 특징 알아보기 및 관찰
 - 교수목원의 특징 및 자생식물 알아보기
- 2) 교수목원 전시관 및 역사관 관람
- 3) 숲 관련 다양한 활동 전개
- 4) 숲 체험학습 실시
 - 고향집정원 -분재정원→
 - 에덴정원 -천년향 -하경정원→
 - 약속의 정원 -하경전망대→
 - 한국정원 -아침교수산책길→
 - 하늘정원 -아침광장

에 나는 뭔가 희열을 느꼈다. 그리고 문득 얼마 전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다. 그 책은 바로 '자연과 하나 되는 녹색 도시 이야기' 라는 책이었는데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 도시를 소개해 주는 책이었다. 내가 이 책을 읽고 생각하고 다짐한 것이 하나있다. 내 꿈은 훌륭한 지도자이다. 아니,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이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저 우리나라가 잘 살고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었다. 이 책에서 브라질의 꾸리치바라는 도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 꾸리치바의 시장처럼 내가 나중에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는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지만 그러한 일들을 환경보존에 조금이라도 결여시켜서 우리도 좋고 환경도 좋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내가 이끌어 나가야 할 곳의 모습을 상상해 보곤 했었는데 그 곳의 모습이 지금 생각해보니 딱 아침고요수목원이었다. '그래! 바로 여기야! 내가 꿈꾸고 있던 그런 곳...'

이곳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자연교육의 현장이었다. 비록 이 곳에 있는 식물들의 이름을 다 알진 못하지만 예쁜 꽃을 보고, 푸르른 나무를 보고, 멋있는 경치를 보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소중한 것 같다. 정말이지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를 찾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시에는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서 힘들고 항상 불안하기만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냥 마음이 편했다. 물론 당장 집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긴 했지만 이곳에 있는 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자연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런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다. 요즘 같이 바쁜 세상에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잠시나마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난 정말 행운이다! 정말로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내가 아침고요수목원에 있는 내내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물론 계속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계속 걸어 다녔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을까 하는 후회만 한다.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었을까. 그 시간에 좀 더 자연을 만끽했으면 좋았을걸. 에이.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도 애고 있는 후회를 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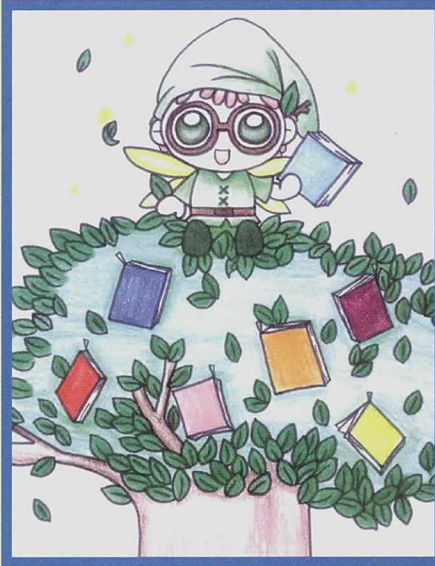
내가 이곳에서 배운 것도 참 많다. 이곳에서 식물에 대해 잘 아시는 선생님께 이것저것 많이 배웠다.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식물이 있다. 바로 질경이이다. 수목원에서도 우리가 참 많이 밟고 다녔던 식물이었다. 식물을 짓밟으면서 다니는 것이 참 미안했는데 선생님께 질경이에 대해 배운 다음부터는 더욱 열심히 밟아주고 있다. 질경이는 그 종자를 사람들이 밟아줌으로써 터뜨려서 사람들의 신발에 붙어 여러 곳으로 퍼뜨려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 주변이나 풀밭에 많이 번식하고 있다고 한다. 식물은 모두 소중하게 가꾸고 대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질경이처럼 예외인 식물이 있어 참 놀라웠다. 질경아, 앞으로 많이 밟아줘서 너의 자손 번식을 도와줄게.

정말이지 인생의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이 날을 난 잊지 못할 것이다. 아침고요수목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언젠가는 꼭 다시 가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사회에 나간다면 아침고요수목원 같은 곳을 많이 만들어 사람들에게 자연을 실컷 만끽하게 해주고 싶다. 우리의 소중한 자연이여! 사랑합니다.

글/이유진

※ 이 글은 전국 중등환경교육후각 공모전에서 동상(한국환경교육협회장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 대상여중 학생작품 ♥



♥ 대상여중 (푸른숲선도원)캐릭터 - SUPI



♥ 숲관련만화그리기
주제 - 숲이 하는 일



♥ 숲관련 만화그리기
주제 - 숲이 하는 일



♥ 숲관련 만화그리기
주제 - 숲이 하는 일



♥ 숲관련 마인드맵